

#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한길연\*

### 차례

1. 서론
2. 남성인물과의 관계에서 본 탕녀
  - 2.1. 호걸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
  - 2.2. 군자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
3. 탕녀의 몸의 형상화 방식과 타자화의 논리
  - 3.1. 선협적으로 규정되는 몸
  - 3.2. 요물로 변형되는 몸
  - 3.3. 변방으로 추방되는 몸
4. 타자들의 규합의 실패와 체제순응적인 결말
5. 봉합되지 않은 균열, 끝나지 않은 서사
  - 5.1. 갈망과 공포의 아포리아
  - 5.2. 배제의 논리와 자체 균열
6.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형 인물의 몸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두 인물은

\* 서울대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여타의 대하소설 속 탕녀형 인물과 유사하면서도 몸의 형상화 방식에서는 극도의 극단적이고 기괴스런 변형을 통해 ‘타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몸은 등장에서부터 요부·악녀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점차 엽기적인 요물로 변형되고, 중국에는 오랑캐 땅으로 추방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의 몸은 매우 우연적인 설정에 의해 당대의 남성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형되거나 훼손되고 있었다. 탕녀형 인물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차별과 배제는 결국 당대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를 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탕녀형 인물이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에 근거한 기존체제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타자로 배제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불안감은 이들 탕녀형 인물이 요물, 오랑캐 등 당대의 타자들을 모두 규합하여 중원을 전복하려는 양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규합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탕녀에 관한 서사는 다시금 남성 중심의, 중원 중심의 기존질서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제순응적인 이러한 안정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봉합되지 않은 균열이 자리함으로써 이들 작품은 새로운 긴장감을 창출하고 있었다. 탕녀형 인물에 대한 강한 배제의 논리와 더불어 강한 선망의 태도가 공존함으로써 탕녀에 대한 공포와 갈망의 아포리아가 재현되는 한편, 탕녀형 인물에 대한 가혹하리만치 혹독한 배제의 논리 안에는 당대 이데올로기가 지닌 협소성이라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었다. 가장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보이는, 고전소설 속 탕녀에 관한 서사 안에 당대의 남성 중심적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탕녀형 인물에 관한 서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핵심어 : 탕녀, 성적 욕망, 몸, 타자화, 자체 균열, 고전대하소설

## 1. 서론

탕녀(蕩女)란 무엇인가? 음탕한 여성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나,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정의하자면 성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리비도적인 인간형의 여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탕녀형 인물은 대개 자발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한 남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수의 남성과 관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탕녀는 고금을 막론하고 문체적인 인물로서 소설 속에 빈빈히 등장한다. 고전소설 속에도 탕녀형 인물이 여러 작품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 잘 알려진 경우가 『사씨남정기』의 교씨이다. 그녀는 남편인 유연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청 등과 사통하면서 유씨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이러한 탕녀형 인물은 수십 권으로 이루어진 대하소설에서는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진다.<sup>1)</sup> 대하소설에서 탕녀형 인물은 남성인물을 현혹시키면서 한 가문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양상까지도 보인다. 그러나 결국 탕녀는 처형되고 이에 따라 주요 가문 및 나라 전체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 대개의 소설에서 흡사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러한 탕녀의 모습은 정형화된 악녀형 인물의 스테레오 타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골적인 서사구조의 틈새와 이면에 숨

---

1) 대하소설 속의 탕녀형 인물에 대한 연구는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씨삼대록』, 『쌍천기봉』, 『명주보월빙』 등의 대하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탕녀형 인물들을 ‘성에 대한 욕망 발현의 양상’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 탕녀의 몸의 형상화 방식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타의 탕녀형 인물들과 흡사하면서도 『쌍성봉효록』과 『임씨삼대록』에서 특히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탕녀형 인물의 몸의 변형 양상에 초점을 맞춰 대하소설에서의 탕녀형 인물의 한 단면을 예각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겨진 균열의 징후들이다. 탕녀형 인물이 악녀로 등치되는 이분법적인 서사구조의 틈새를 촘촘히 탐색하고 그 이면을 낱낱이 뒤집어보면, 안정된 서사구조가 가지는 억지스러움과 불안정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탕녀형 인물의 몸에 대한 형상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여성 육체는 여성 욕망의 원천이자 성적 욕망의 표출 지점으로 여성 육체가 표현되는 방식에 주목하면 성적 기호로서의 여성 육체가 남성적인 규율권력에 의해 통치되고 규정되는 양상을 밝혀낼 수 있다는 선행 논의대로,<sup>3)</sup> 여성의 몸은 남성 권력의 구체적인 통제 장소가 된다. 따라서 탕녀형 인물에게 있어 이러한 몸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들 탕녀형 인물은 선험적으로 음녀 혹은 악녀로 규정되고, 요물 혹은 괴물로 변형되며, 중국에는 오랑캐 땅인 변방으로 추방된다. 이러한 몸의 형상화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타자화되는 양상

2) 여성의 몸에 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본고와 관련한 몸에 관한 주요한 논의들로는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문경자·신은영 역), 나남출판, 1990 ; 토리 모이,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임옥희 외 역), 한신문화사, 1994 ;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황정미 편역), 새물결, 1995 ; 이숙인,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 : 몸의 주체화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전통과 현대사, 1999 ;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이봉지·한애경 역), 문학과지성사, 2000 ;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 홍인숙, 『조선 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미현, 『이브의 몸, 부재의 변증법-한국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 『기호학연구』 12, 한국기호학회, 2002 ; 케티 콘보이 외,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고경하 외 역), 한울, 2003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창비, 2005 ;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주리,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신체 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심진경, 『한국문화와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 안미영,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등이 있다.

3) 심진경, 앞의 책, 30쪽.

의 구체적인 국면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박적인 타자화의 양상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탕녀가 악으로 환치되고 처형되는, 체제 안정적인 서사구조의 이면에는, 오히려 당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모순이 잠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권력 관계에서 (...) 가장 많은 슬책에 이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들을 위한 거점 또는 연결점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sup>4)</sup>라는 지적대로, 탕녀의 성적 욕망을 극단적으로 소거하고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를 재편하는 방식과 그 이면에서의 봉합되지 않은 균열의 지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탕녀에 대한 정의이다. 앞서 탕녀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기질적 성향에 근거해 정의를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기질적 성향과 더불어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탕녀라는 개념을 ‘가치 절하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회의 시선과 규제이다. 탕녀는 왜 반드시 악녀와 동급이 되며 괴물로 형상화되어야만 하는가? 탕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본인 스스로의 기질적 성향 또한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하는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규준에 의해 한 번 탕녀라고 낙인찍히면 그녀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제됨으로써 결국 어쩔 수 없이 명실상부한 ‘탕녀’로 귀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탕녀의 형성에는 사회적 영향 또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탕녀는 개인의 기질적 성향과 사회적 규제가 긴밀하게 맞물려 산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탕녀형 인물의 형상화 방식에서, 특히 그들의 몸의 형상화

4)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앞의 의지』(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38쪽.

방식에서 사회적 시선과 규제가 너무나 강박적이고 억지스럽다면, 거기에는 탕녀를 억지로 괴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대 사회의 모순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대하소설의 탕녀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하소설 속 탕녀에 대한 온전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대하소설에 등장하는 탕녀형 인물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두 인물로 한정하여 분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 탕녀형 인물은 여타의 대하소설에서 볼 수 있는 탕녀형 인물과 흡사하면서도, 다른 소설에서보다도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들의 몸이 괴물로 변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분석은 탕녀형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탕녀형 인물의 몸에 관한 형상화의 특징적 국면들을 더욱 면밀히 규명할 수 있게 한다.<sup>5)</sup> 더욱이 탕녀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몸의 형상화 방식은 탕녀에 대한 서사진행 전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탕녀에 관한 강박적인 서사를 면밀히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서사구조 이면에 내포된 균열의 징후를 선명하게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한편 이들은 탕녀형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유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중요하다. 탕녀형 인물은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

5) 대하소설 속 탕녀형 인물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매우 유형적이다. 따라서 어느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각각의 작품이 지닌 미세한 특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조씨삼대록』의 탕녀형 인물은 아예 여우인 것으로 설정됨으로써 탕녀형 인물의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쌍성봉효록』의 교씨, 『임씨삼대록』의 옥선의 경우에는 평범한 여성인물이 점차 요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극단적으로 설정됨으로써 탕녀의 몸에 관한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기에 유리하다. 물론 소논문이라는 지면의 한계상 탕녀형 인물 전반을 다루는 것이 여의치 않기에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탕녀형 인물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기도 하다.

지만 그가 관계하는 남성이 어떤 부류의 인물인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호걸형 남성과 혼인하고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군자형 남성과 혼인한다.<sup>6)</sup> 이들 모두 결국에는 오랑캐의 왕비가 되어 남성 가문과 나라 전체를 혼란시키는 양상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이 어떤 남성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탕녀형 인물로 규정되는가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고 이를 통해 추출해 낼 수 있는 의미망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대하소설 속 탕녀에 관한 타자화의 논리 이면에 존재하는 규율의 징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남성인물과의 관계에서 본 탕녀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이들 작품 안에서 전형적인 탕녀형 인물로서 형상화된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편감을 정할 뿐만 아니라, 남편 이외의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나게 되는 상대 남성이 누군가에 따라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사건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기질적 성향 외에도 사회적 규제와 차별 또한 이들이 탕녀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 『임씨삼대록』에는 군자형 남성과 결혼하는 옥선뿐만 아니라 호걸형 남성과 결혼하는 옥경도 등장한다. 그런데 옥경 또한 옥선과 마찬가지로 탕녀형 인물로 그려지나 탕녀로서의 형상화가 『쌍성봉효록』의 교씨보다 노골적이지 않기에 『임씨삼대록』에서는 옥선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2.1. 호걸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

『쌍성봉효록』의 교씨(7)는 호걸형 남성과 혼인하는 인물이다. 교씨는 모친이 죽은 뒤 계모 가부인 밑에서 자란다. 어느 날 오라버니 교운을 만나러 외헌(外軒)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오라버니의 친구인 임계영을 만나게 된다. 임계영과 교씨는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 눈에 반한다.

이에 교씨는 몽사(夢事)를 가장하여 임계영과 자신이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부인은 교씨의 마음을 이미 짐작한 뒤 음란함을 꾸짖고 심방에 가둔다. 임계영 또한 매파를 보내 교씨와 정혼하려 하지만, 가부인이 교씨가 병이 나 죽었다고 하여 매파를 돌려보낸다. 교씨는 자신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계모 가부인을 절치하며 임계영과의 인연을 이루기 위해 벽을 뚫고 나와 탕후 부부에게 의탁한다. 자신이 임계영과 정혼하였는데 집에서 자신을 다른 가문에 출가시키려 함에 집을 나왔다 거짓말하고는 능운이라는 요승(妖僧)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미혼단(迷魂丹)<sup>8)</sup>이라는 요약(妖藥)을 얻어 탕후 부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가짜 탕씨가 된 교씨는 탕후 부부의 주선 아래 임계영과 혼인한다. 그녀는 남편 임계영으로부터 총애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실부인인 소소저의 숙덕(淑德)을 시기하여 온갖 모략을 꾸밈으로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 이에 시댁 식구들이 교씨의 신분을 의심하던 차, 임계영이 전일 교씨와의 인연을 말하자 임씨 집안에서는 교운을 불러 교씨와 대면케 한다.

신분이 탄로난 교씨는 자신이 친정에 돌아가도 죽을 것이 뻔하기에

7) 교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8) 미혼단(迷魂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약이다. 특히 그간 소원했던 사람은 친하게 만들고 친했던 사람은 소원하게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도망갈 것을 결심하는데, 이 때 능운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름을 타고 달이나 능운의 스승인 석파도인을 만난다. 천 년 묵은 옥석비파의 정령인 석파도인은 인간으로 변신한 뒤 현무산 깊은 곳에 궁궐을 짓고 웅거하고 있다가 교씨를 만나자 이 기회에 세상에 나가 뜻을 펴려고 전생에 교씨가 자신의 딸이었다고 거짓말하면서 교씨를 양녀로 삼는다. 개용단(改容丹)<sup>9)</sup>이라는 요괴로운 약을 통해 더욱 더 아름다운 미모로 변신한 교씨는 부씨 집안의 과부인 송부인에게 의탁한다. 그리고는 송부인에게 미혼단을 먹여 자신의 마음대로 그녀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가짜 부씨가 된 교씨는 소씨뿐만 아니라 문씨, 홍씨 등 이미 여러 부인을 두고 있는 임계영에게 시집가는 것이 어렵기에, 또 평소 자신의 시동생 임주영의 선풍도골(仙風道骨)의 풍채를 사모하였기에 임주영과 혼인하려고 결심한다. 이에 거짓 몽사로 임주영과 천연(天緣)이라 하며 송부인을 부추겨 그와 정혼한다. 그런데 혼인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함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교씨의 눈에만 보이는 금갑신령이 나타나 그녀를 난타하며 죄를 꾸짖고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지옥에서 십대왕(十大王)이 교씨를 꿰는 유향물에 삶고는 그녀에게 이후 창질(瘡疾)이 생겨 군자의 몸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며 오랑캐 땅으로 가서야 창질이 나올 것이라 알려준다. 실제로 이후에 교씨의 온몸에 고름이 흘러 악취가 진동한다. 능운에게 얻은 ‘감충주’라는 요약을 통해 곁으로는 창질이 멀쩡한 것 같이 되나, 하늘이 내린 천형은 어찌할 수 없어 피부 밑으로는 농즙(膿汁)과 농혈(膿血)이 흥건하다. 이에 임주영이 교씨의 절색에 취해 동침하려다가도 악취가 나 도저히 가까이 못하게 된다. 교씨는 미혼단을 통해 임주영이 정실인 탕소저와는 소원하고 자신만을

9) 개용단(改容丹)은 자신의 외형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약이다. 이는 자신의 외모를 지금보다 빼어난 모습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하려 할 때 주로 쓰인다.

총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으로 인해 그와 동침할 수 없는 것을 애 닳아한다. 이에 그녀는 탕소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계락을 쓰다가 결국 신분이 탄로나 시댁에서 출거당한다. 중국에는 오랑캐의 왕비가 된 교씨는<sup>10)</sup> 자신을 내쫓은 임씨 가문을 도륙하기 위해 요괴, 오랑캐의 무리와 함께 중원을 공략한다. 그러나 결국 임계영의 형인 임백영에게 붙잡혀 요괴, 오랑캐의 무리와 함께 처형당하게 된다.

## 2.2. 군자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

조왕의 딸인 옥선 군주(郡主)는 우연히 성루에 올라갔다가 장원급제 하여 지나가는 임창홍에게 반하여 탄월을 던진다. 임창홍은 자신에게 탄월을 던지는 옥선의 행위를 더럽다 여겨 탄월을 다시 담장 안으로 넘긴다. 그러나 임창홍을 사모하여 병이 든 옥선 군주는 임창홍이 이미 설월염과 혼인하였기에 군주인 자신이 그의 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혼인하기를 갈망한다. 결국 거짓 몽사로 임창홍과 천연(天緣)이라 하여 자신의 부친을 부추겨 천자의 사혼지(賜婚旨)를 얻어냄으로써 임창홍과 혼인을 이룬다. 그러나 임창홍은 자신에게 반해 늑혼(勒婚)으로써 자신의 첩이 된 옥선을 더럽다 여기고 동침하기를 거부한다. 신혼 첫날밤부터 자신을 냉대하는 임창홍을 보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옥선군주는 이 모든 것이 임창홍의 정실인 설월염 때문이라 생각하고는 요승 능운, 요괴 묘월과 결탁하여 여러 요괴로운 약과 기괴한 술책을 써서 사람을 살해한 뒤 이를 설월염의 죄로 몰아 그녀를 유배가게 만든다. 그러나 설월염이 집을 떠난 뒤에도 자신을 전

10) 교씨가 오랑캐의 왕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쌍성봉효록』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앞뒤 문맥상 그녀는 몸의 창질이 오랑캐 땅에 가서야 나올 수 있다는 천상의 계시가 있었기에 오랑캐 땅으로 갔으며, 요약을 먹고 절세미인이 되었기에 오랑캐 왕의 환심을 사서 결국 그곳의 왕비가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혀 찾지 않는 임창홍과 자신을 냉대하는 시대 식구들을 보고는 옥선은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한편 우연히 자신의 시동생 임재홍의 옥골선풍(玉骨仙風)을 보게 된 옥선은 그와 관계를 가져보려는 마음을 가지나 주위의 만류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 한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자신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임창홍 때문에 앓아하던 옥선은, 결국 자신을 사모하는 양왕을 몰래 불러들여 성적인 갈증을 해소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숫처녀의 표지인 앵혈(鶯血)<sup>11)</sup>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옥선은 양왕과 함께 도망갈 결심을 하고는 자신이 임씨 가문을 떠나기 전 그 동안의 분을 풀기 위해 양왕에게 임씨 가문 전체를 도둑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양왕이 보낸 자객들은 결국 붙잡히고 옥선의 팔에 앵혈이 없어진 사실마저 시대식구들에게 발각됨으로써 그간의 사실들이 다 들통 난다. 나라에서 옥선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함거(檻車)에 넣어 수송하던 중, 양왕이 부하들로 하여금 옥선을 몰래 빼오도록 하나 우연찮게도 그들은 옥선을 오랑캐의 함선에 빼앗기고 만다. 옥선은 못 오랑캐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도 임씨 가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 살아남아 결국 오랑캐의 왕비가 된다. 그리하여 오랑캐의 왕을 부추켜 묘월 등의 요괴와 함께 임씨 가문 전체, 나아가 명나라 전체를 뒤엎으려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결국 임창홍에게 붙들려 처형된다.

이상으로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이 탕녀형 인물로 그려지는 과정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자신이 사모하는 남성과의 인연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가문과 이름마저도 내던지는, 혹은 군주로서의 체면과 명예마저도 내던지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이들은

11) 앵혈(鶯血) :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숫처녀의 팔에 피꼬리 피를 찍어 생긴 붉은 점을 말하며, 이는 숫총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앵혈은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면 사라지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혼인한 상황에서도 시동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들은 이들이 성적 욕망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갈등을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걸형 인물과 혼인하는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남편의 총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총애를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민 사실이 발각되는 과정에서 그간 속여 왔던 거짓 신분이 들통남으로써 시댁에서 쫓겨나며, 군자형 인물과 혼인하는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의 극심한 냉대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미는 한편 성적 갈등을 풀기 위해 다른 남자와 사통하다가 중국에는 이런 사실들이 모두 발각됨으로써 시댁에서 쫓겨난다. 그럼에도 그들의 결말은 흡사하다. 이들 두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상대에게서 성적 욕망을 풀 수 있는 길이 차단되자, 결국 오랑캐의 왕비가 되어 중원을 침략함으로써 자신의 욕망 실현을 방해했던 인물 모두를 해치려는 광폭함을 드러내다가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런데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그녀들의 기질적인 성향 외에도 당대 사회의 강압적인 시선과 규제 또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은 한 번도 자신의 친정이나 시댁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불행한 인물로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규제와 배제는 이들을 어쩔 수 없이 탕녀로 귀결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는 이들의 몸의 형상화 방식에서 선명히 드러나는데,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탕녀의 몸의 형상화 방식과 타자화의 논리

#### 3.1. 선협적으로 규정되는 몸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외모에 대한 형상에서부터 선협적으로 탕녀 혹은 악녀로서 규정된다. 비록 그녀가 임계영을 보고 사모하여 가짜 탕씨가 되어 혼인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음행 혹은 악행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그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sup>12)</sup>

공교이 꾸민 단장 가운데 아미의 슬기 은 " 하고 세안낭성이 활양한 경  
홍을 씌어시며 도화 양협의 즈약한 봄빛치 물우늑아 희당화 앓춤 이슬을  
먹음은 듯 도주잉순은 우주지변을 갖초와 교요한 티도와 흘너흔 즈티며  
그 동지 경여하여 결비현인숙네라 (『쌍성봉효록』 7권, 63~4장)

그 아름다운 미모와 혼란한 자태가 아름답긴 하지만 이마에 살기가 가득하고 행동이 가벼우니 결코 어진 숙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임계영의 부친인 임규 또한 교씨의 별다른 음행 혹은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가 달기(婬己), 포사(褒姒)와 같이 나라를 망칠 인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가국을 어즈러일 즈는 츠인이라 달기의 고오미 은실을 피망하고 표스  
의 닝담이 쥬시를 눈 흐엿나니 계영이 불헿하여 맛느시나 소탈흔 아히 성  
성이 소상하여 일노조츠 가란를 비저닐 증디라 엇지 불헿이 적다 흐리오”  
(『쌍성봉효록』 7권, 64~65장)

심지어 서술자는 명칭조차 ‘음교’라 하여 윤리적인 잣대를 선명하게

12) 탕녀형 여성을 비롯한 여성반동인물에 관한 이러한 선협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장시광, 앞의 논문, 1~202쪽에서 논한 바 있다.

드러낸다. 교씨가 자신을 가둔 계모에게 불만을 품고 심방에서 뛰쳐나와 임계영과의 혼사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작품의 끝까지 서술자는 교씨를 ‘음란한 교씨’라는 뜻의 ‘음교’로 거의 매번 지칭한다.<sup>13)</sup> 비록 우연히 만나게 된 임계영을 보고 사모하여 그와의 혼사를 스스로 주장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는 별다른 음행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녀로 못 박힌다. 이처럼 서술자의 명칭에서부터 교씨를 ‘음란한 교씨’로 규정함으로써 그녀는 여타의 인물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는 「임씨삼대록」의 옥선 또한 마찬가지다. 옥선은 비록 교태롭고 아름다우나 이마에 살기가 가득하여 달기 혹은 포사의 후신(後身)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 또한 아직 별다른 음행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장원급제하고 돌아가는 임창홍의 빼어난 모습을 누상에 올라가 구경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음부찰녀(淫婦刹女)”<sup>14)</sup>라고 서술된다.

이처럼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이들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철저히 탕녀로 규정된다. 물론 당대에는 외간남자를 보고 혼사를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울 수 있지만 이들에 관한 좀 더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탕녀라는 낙인이 찍혀 타자로서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이들이 다른 인물들이 근접해서는 안 될 독특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선형적인 징표의 하

13) 교씨가 집을 뛰쳐나온 뒤 탕씨 가문에 의탁하여 임계영과의 혼사를 도모하려고 하는 장면에서부터는 교씨에 대한 명칭이 ‘음교’로 바뀌어 있다. 음교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곳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니 썩 음교 영미를 지향업시 너어보닌 후 삼숙이 되도록 소식이 업스이 주야 방춘을 요란하고 기다리미 간절혀여 (…)”(「쌍성봉효록」 7권, 45장) 이는 교씨가 자신의 시녀인 영매에게 임계영과 혼사를 도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내어보낸 뒤 소식이 없자 애 닳아하는 장면이다.

14) 화풍경운을 즈세이 불시 장원의 일월안모의 상운서귀 두우를 썩친 듯 슝의 눈 정치를 앓는지라 음부찰녀의 눈 붉은미 이상호되 이목이 현왕혀여 조시 보지 못호고 혼긋 발을 굴너 신신 갈치호고 (…)(「임씨삼대록」 6권, 19~20쪽)

나로 기능한다.

### 3.2. 요물로 변형되는 몸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쓴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남편을 유혹하거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적국(敵國)을 해치기 위해 요승, 요괴 등과 결탁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씨는 능운이라는 요승 및 석파도인이라는 요괴와 결탁하며, 옥선은 능운이라는 요승 및 묘월이라는 요괴와 결탁한다.<sup>15)</sup>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갖가지 요괴로운 약을 사용하게 된다. 개용단(改容丹)이라는 요약을 통해 스스로의 외모를 바꾸고, 미혼단(迷魂丹)이라는 요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이러한 모습은 선협적으로 규정된 운명마저도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요약들은 그 성분 및 사용처가 워낙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에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성분은 “춘가 소년들을 거두어 심간과 피를 빅초의 장말호여”<sup>16)</sup> 만든 것이며, 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데 이용된다. 마치 서구의 작품에서 온갖 요괴로운 성분으로 약을 만드는 마녀와 연대하여 일을 도모함으로써 마녀화되는 여성인물과 마찬가지로,<sup>17)</sup> 이들은 요승, 요괴와 연대하여 요약을 통해 계략을 꾸밈으로써 이러한 요물의 무리와 동급으로 전

15) 두 작품에서 요승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능운’으로 동일하다. 석파도인이나 묘월의 경우는 천년 묵은 구미호 등의 짐승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진 요괴들이다.

16) 『쌍성봉효록』 2권, 11장.

17) 김용태, 『여성의 몸에 찍힌 반역의 낙인 : 엘리노어와 멕베스 부인의 마녀와의 연대』, 『세익스피어 비평』 41,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005, 653~678쪽.

락한다.

특히 이들이 요약을 통해 변모되는 장면은 섬뜩하리만치 기괴하게 묘사되어 있다. 일례로 『쌍성봉효록』에서 교씨가 개용단을 써서 소부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다음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능운니 웃고 푸기로서 세 환 단약을 니여 음교을 먹이고 혼 찬물을 입 속의 물어 음교을 향하여 씹으며 진언을 넘하니 교네 흘런 실식하며 혼 소리 지르고 엷더지니 호흡이 끈쳐지고 수족이 절녕흔지라 식경 후 음교 낮가죽이 절노 푸러져 이러나니 능운이 입으로 고이흔 안기를 토하여 음교의 입속으로 드리으며 손으로 낮가죽을 어로만지더니 이윽고 교네 숨을 니쉬며 입의 낮가죽이 다 버셔지미 이러 안즈니 교렴가려흔 용뵈 변하여 절출쇄락흔 미인니 되미 일천광염과 일만덕해 완년니 소부인의 형용을 모 썬은 거시니 영미 손벽 쳐 묘흔물 스투하고 (…)(『쌍성봉효록』 9권, 45장)

개용단을 먹고 교씨가 정신을 잃자 호흡이 끊기고 수족이 차가워지며 잠시 후 그녀의 낮가죽이 절로 풀어진다. 이에 능운이 입으로 괴이한 안개를 토해내어 교씨의 입속으로 붙여넣으면서 손으로 교씨의 낮가죽을 어루만진다. 이윽고 교씨가 숨을 내시는데 이 때 그녀는 낮가죽이 이미 다 벗겨지고 절색의 용모로 변해서 일어난다. 그녀 또한 미인이기는 하나 보통 여자들보다 좀 더 교태롭고 아름다울 뿐이었는데 개용단을 통해 청초하기 그지없는 천하제일의 미모인 소부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오늘날 마취한 채 성형 수술하는 장면을 보는 듯, 요괴로운 술책으로써 사람의 몸을 엽기적으로 변형시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변형을 통해 변모된 교씨는 사람이기보다는 요물

18) 이러한 장면은 탕녀형 인물을 요물로 변모시키려는 의도 이외에도 작품의 흥미를 배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괴한 장면이 탕녀형 인물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 가깝게 느껴지게 된다. 인형의 탈을 쓴 요괴의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임씨삼대록』의 옥선 또한 개용단을 먹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몸을 바꿈으로써 요물과 비슷하게 변모해간다. 그리고 이들이 개용단을 먹고 변용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을 때, 남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은 그녀들을 사람이 아닌 요물로서 취급한다.

이후 이들은 더욱 더 요괴의 무리로 고정화된다. 아예 교씨는 석파도인의 양녀가 되고, 옥선은 묘월의 제자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요괴로부터 온갖 수법을 전수받는다. 이로써 이들 탕녀형 인물은 명실상부한 요괴의 무리에 합류된다. 탕녀형 인물과 요괴의 등가구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탕녀형 인물이 인간과 요괴의 분류에서 요괴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더욱이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스스로 요물과 연대함으로써 요물로 변모해 갈 뿐만 아니라, 천형(天刑)에 의한 낙인으로 인해 요물로 변형되는 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교씨가 임계영과 혼인하였다가 신분이 발각되어 도망친 뒤 다시 절세미인으로 변모하여 임계영의 동생인 임주영과 혼인을 도모하려는 장면이다. 혼인식 날 갑자기 청천벽력이 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씨의 눈에만 보이는 금갑신령이 나타나 그녀를 난타한 뒤 저승의 십대왕에게 데려간다. 이 때 십대왕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츄녀는 아즉 양쑤 진치 아니니 츄녀 만고형악을 갓초 바다 더국의 업 더거던 가도왔다가 혼빱을 잡으다가 칼산지옥의 너흐리니 지금은 일시 형벌을 데고 탕화지옥의 슬마 혼빱을 인간의 보니라 유히의 슬문 살치 푸르러 세상의 누가 창질이 되어 성농혼즉 감히 군자의 몸을 더러이지 못 할 거시니 음네 능히 군즈의 총을 웃지 못혼즉 반다시 님시를 반하고 도쳐의 유락하여 호지의 투신히 거시니 그 썸의 창질이 거더 성흔 살이 되어 건용의 욕을 밧게 하고 맛츄님 님공의게 잡은 비 되 되여 등국의 드러와 형벌

을 빗게 흐라” (『쌍성봉효록』 11권, 62장)

이후 교씨는 실제로 온몸이 굽아 농즙과 농혈이 가득 흘러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 비록 능운이 ‘감충주’라는 요약으로 이러한 창질(瘡疾)을 겹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도록 고쳤지만 피부 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농즙을 제거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하여 임주영이 멀리서 교씨의 고태적인 아름다움에 반해 동침을 하려 하다가도 가까이하면 악취가 진동하기에 도저히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게 된다. 교씨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특히 남성들이 도저히 함께 잠자리 할 수 없는 악취나는 요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에 교씨는 철저히 괴물화된다.<sup>19)</sup>

이처럼, 『쌍성봉효록』의 교씨나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억지스럽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몸의 변형을 겪는 가운데 요물로 변모된다. “남성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런 만큼 매혹적이고 위험하였던 여성의 성적 욕망은 곧 남성 질서의 타자로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곧 인간질서의 타자로 재현되었다.”<sup>20)</sup>는 지적대로 탕녀형 인물들은 요물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또 천상의 낙인에 의해 인간질서의 타자인 요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탕녀형 인물의 이러한 요물로의 변신은 결국 남성들에게 이들 탕녀에 대한 접근 금지를 강요하는 메타포로 작용하고 있는

19) 『임씨삼대록』에서는 옥선이 아닌 옥경에게 이런 천형에 의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옥경은 옥선보다는 탕녀로서의 이미지가 덜 드러나지만 옥선과 자매처럼 자라난 인물이다. 그녀는 이미 임월혜와 혼인한 설희광을 사모하여 천자의 사혼지를 받아 그와 정혼하게 된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그녀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장삼을 뒤집어씌운다. 그 장삼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바늘같이 날카로운 물체로 변한다. 이후 그녀의 온 몸은 실제로 바늘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와 결혼한 설희광이 그녀의 미모에 침혹되어 동침을 하려 하다가도 그녀의 몸이 자신을 바늘같이 찔러 자신의 몸에 혈흔이 남자하기에 결국 그녀를 멀리하게 되는 기괴스런 양상이 펼쳐진다.

20) 류사오평, 『역사에서 허구로』(조미원 외 역), 길, 2001, 174쪽.

것이다.

### 3.3. 변방으로 추방되는 몸

요물로 변한 이들은 결국 중원에 머무르지 못하고 변방의 오랑캐 땅으로 추방된다.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천형에 의한 창질이 오랑캐 땅에 가서야 나올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오랑캐 땅에 가게 된다. 그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곧 하늘에 의한 추방인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야 창질이 나아 이성과의 동침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는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오랑캐 땅의 왕비가 된다.

이는 『임씨삼대록』의 옥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임창홍이 3년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않자 한이 사무치는 한편, 성적 욕망을 풀 수 없어 안타까워하다가 자신을 사모하는 양왕을 자신의 침실에 불러들여 사통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숫처녀의 표지인 앵혈(鶯血)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시택식구들에게 발각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죄악들 까지도 다 들통이 나 나라에 잡혀가게 된다. 이 때 호송되는 옥선을 양왕이 도중에서 구출하려고 부하들을 보내나 우연찮게도 그들은 오랑캐에게 옥선을 빼앗기고 만다. 여기에서 하필 옥선이 오랑캐의 선박에 의해 탈취되어 오랑캐 땅으로 가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은 교씨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의한 추방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에 의한 오랑캐의 탈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받는다는 식으로 서사는 전개된다. 그것은 곧 하늘에 의한 처벌인 것이다.

특히 그녀는 오랑캐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 훼손을 경험한다.

선시의 옥선군쥬 낭왕을 쓰르려 하다가 호인의 비의 실녀 가미 이 비는 타라국 비라 기중 옷듬 상스 오랑키 옥선을 안고 향기로온 뺨을 제 뺨의 다히고 쥬순을 접히고 니로디 “그디 응당 농왕의 딸이로쇼니 니 비의 교즈를 티와 보니여 계시니 니 계집이 되리로다” 옥선이 눈을 드러보미 흥흥 오랑키 삼스십 명이 둘러시니 눈이 방울 꺾고 엄니 부루도든 거시 입시울 밧기 느니 그 흥악하미 비홀 디 업거늘 짝근 머리와 갈범 꺾흔 소리로 저의 몸을 후리쳐 안고 입슈알을 썩라 음흥흥 형시 옥선의 째의 측흔지라 옛일을 생각하미 치신무지하되 아모커나 의지하리라 하고 순히 말을 듯고 쓰라가 기모비계를 운동하여 임설 낭문을 어육하리라 하여 못 오랑키의 음육을 다 푸러쥬니 진실노 음몽치 옥선이라 (『임씨삼대록』 18권, 59~60쪽)

옥선은 오랑캐 땅으로 가는 배 안에서 흥측하기 짝이 없는 수십 명의 오랑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옥선 또한 이것이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운 일임을 아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전락하게 만든 임씨 가문과 설씨 가문을 도륙하기 위해 치욕스러움을 참는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런 옥선을 “오랑키의 음육을 다 푸러쥬니 진실로 음몽치 옥선이라”로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음녀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할 강을 건너듯, 심각한 육체적 훼손을 겪음으로써 다시는 중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그리고 “신하의 계집도 님군이 엇고 님군의 계집도 신히 엇는”<sup>21)</sup> 오랑캐 땅의 왕비가 된다.

이처럼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운명적이라 할 만한 천형(天刑)에 의해 오랑캐 땅으로 추방된다. 그들의 몸은 중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몸인 것이고 그들의 욕망 또한 오랑캐 땅에서나 실현가능한 변방의 욕망인 것이다.

이상으로 당녀의 몸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몸은

21) 『임씨삼대록』 18권, 62쪽.

선형적으로 음녀로 규정되고, 요물로 변형되며, 종국에는 변방으로 추방됨으로써 타자화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탕녀형 인물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차별과 배제는 결국 당대 남성 중심의 권력 구도를 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탕녀형 인물은 일부다처제라는 당대의 남성중심적인 체제 안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녀들의 넘치는 성적 에너지는 남편이 다른 부인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 남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남편 이외의 또 다른 남성에게서라도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은 남성 중심의 당대 체제 아래에서 철저히 타자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탕녀의 몸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지 않고 강박적이라 할 만큼 지나치게 과장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탕녀의 몸의 형상화 방식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양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당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된 이들 탕녀들은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4. 타자들의 규합의 실패와 체제순응적인 결말

탕녀형 인물의 타자화는 결말 부분에서 더욱 공고히 구축된다. 변방으로 추방된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그곳에서 오랑캐의 왕비가 된 뒤, 오랑캐 왕에게 중원을 정벌하도록 부추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동모했던 요승, 요괴들까지도 모아 힘을 키운 뒤 중원을 뒤엎으려 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규합은 의미심장하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중원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는 변방,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는 승려,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는 요물 등 당대 사회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 거의 모두 모여 자신들이 주체가 되기 위해 나서 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규합의 선두에 탕녀형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씨와 옥선 모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저해가 되었던 시대 가문 전체를 도륙하려는 야망으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한다. 그녀들이 가진 성적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굴절되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는 오랑캐들을 규합하고 요괴들을 불러 모아 중원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해 내고 있는 것이다. 탕녀형 인물이 지닌 리비도적인 에너지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때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사회가 탕녀형 인물에게 느끼는 공포감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탕녀형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성적 에너지가 가장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상황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들 탕녀형 인물일 것이라는 전제가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들의 규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들의 규합이 지닌 공포스러움은 남주인공을 위시한 중국의 병사들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결국 이들이 당대 사회의 타자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열등함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특히 「쌍성봉효록」을 보면, 이러한 타자들의 반란 세력 대 명군의 진압 군사들은 짐승 대 인간의 대결로서 상징화된다.

옥비요정이 디로하여 입으로 음운을 토하여 부작을 날려 저 요술을 횡 하니 경직간의 음뿔 스식하여 흑무 중 슈업는 요정이 본형을 너니 스갈과

독스 비암과 녀오 (….) 사슴과 승녕 꼬기리며 고이흔 즈싱이라 주홍 갖튼 입을 버리고 독기를 썸으며 흉악흔 기계를 발혀 명군을 향하여 몰여 흐드니 문득 주영 중의셔 한 줄 화광이 시로 이러느며 천선 갖튼 낭위 디장이 니다르니 축노지호의 녀광이 쇠락하고 풍위 당당히니 이는 임원슈 낭인니라 자미를 거느려 녀성디호 왈 “요정이 금야의 죽을 줄을 아지 못하고 저근 요술을 미더 감이 위지의 드러와 나의 위엄을 범하뇨 당당이 솜척 용천검의 요측의 더러운 피를 못치리라” 설파의 옥슈의 산호편을 드러 두루 치니 문득 음운 흑뿔 스라지고 스면팔방으로 디병이 겹겹밀밀하여 장충디도를 드러서미 빗치 이난 곳의 요정과 호졸의 머리 추풍낙엽갓치 썰러니지 (….) 요정의 무리와 호인의 죽음이 되갓치 싹히고 피흘너 너를 일윗시니 금야 일전의 현무산 요물의 동뉘 다 망하이라 (『쌍성봉호록』 14권, 4~5장)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당대 이데올로기의 현시 아래 결국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타자들의 규합은 실패로 돌아가고 남주인공을 위시한 명나라 군사가 승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탕녀는 붙잡혀 처형된다. 그것은 탕녀는 요물이고 요물은 인간에게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이로써 탕녀에 관한 서사는 다시금 남성 중심의 당대 이데올로기를 재확인하면서 끝을 맺게 된다. 특히 이들 탕녀형 인물은 각각의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동인물로, 남녀주인공들의 결연 및 그들 가문의 존립을 방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에 이들의 최후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탕녀에 관한 서사는 이것으로 완결되고 있는 것일까?

## 5. 통합되지 않은 균열, 끝나지 않은 서사

앞서 살펴보았듯, 탕녀는 요괴, 오랑캐 등 기존체제의 타자들과 규합

하여 반란을 피하나 결국 실패하고 처참한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 기존 체제의 전복을 꿈꿨던 탕녀, 요물, 오랑캐 등의 타자들의 규합은 일거에 타진되고 남주인공 가문을 위시한 중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탕녀에 대한 이러한 서사는 매우 노골적으로 남성 중심의, 중국 중심의 당대 이데올로기를 재현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자신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타자화의 양상이 너무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괴하면서도 우연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억지스러움은 오히려 이러한 탕녀의 타자화의 이면에 더욱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탕녀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와 심연에 놓여져 있는 공포감의 근원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안정된 서사구조 이면에서의 융합되지 않은 균열의 지점은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5.1. 갈망과 공포의 아포리아

우선 탕녀의 몸에 관한 형상화를 보면 강박적이라 할 정도로 탕녀의 몸을 차별화하면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강한 거부는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탕녀에 대한 극단적인 배제는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강렬한 갈망과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sup>22)</sup> 이러한 양상은 특히 『쌍성봉효록』의 교씨에서 잘 나타나는

22) 탕녀형 인물이 남성들에게 갈망과 거부, 쾌락과 죽음, 욕망과 공포 등의 양가적 이미지로 인식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이명옥, 『팜프파탈-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 다빈치, 2003) 중요한 것은 고전대하소설에서는 탕녀형 인물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그 어느 작품보다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대 사회체제가 이런 탕녀형 인물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배제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또 강렬하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양



데, 교씨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발적인 성적 의지를 보이는 탕녀형 인물은 매우 위험하기에 당대 체제 아래에서는 철저히 타자로서 배제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로 탕녀에 대한 서사를 면밀히 탐색해 보면, 남성인물들은 굳세고 엄숙한 숙녀형 인물들, 즉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속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는 전범적인 숙녀형 인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나긋나긋하면서 교태로운, 성적 이미지가 넘치는 팜프파탈적인 탕녀형 인물에게 매혹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교씨와 혼인한 남성들 모두에게 나타난다.

교씨가 첫 번째로 혼인한 임계영의 경우 비록 소소저와 혼인하였으나 너무나 강직하고 규범적인 숙녀형 인물인 소소저가 조금의 비례(非禮)도 용납하지 않기에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잦다. 그러던 차에 교태로운 교씨를 보자 양귀비가 재생한 듯한 모습에 차마 눈을 떼지 못한다. 그리하여 오매불망 교씨를 잊지 못하던 임계영은 부모들 몰래 매파를 보내 그녀와의 혼사를 도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후 가짜 탕씨로 신분을 바꾼 교씨와 혼인하게 된 임계영은 그녀의 교태로운 모습에 흠뻑 빠진다. 임계영이 소씨 이외에도 문씨, 홍씨 등 여러 부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씨에게 침혹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희의 생각하디 ‘소시는 당세의 숙녀철부요 너모 강열단속하여 장부의 은익을 가탐지 아니하고 홍시는 성정이 어위하여 남즈의 사랑을 돕지 아니하고 문시는 슈습히미 과도하고 너모 침묵하여 나의 답”이 너기든 비라 이 정히 친인[교씨]은 덩년흔 숙녀 아니라 운순다정흔 가인이니 가히 남의 중요로운 노리기라’ (『쌍성봉효록』 7권, 67~68장)

상이 또한 드러나고 있기에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임계영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인들의 특징은, 특히 잠자리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실인 숙씨는 숙녀철부(淑女哲婦)로 너무나 정숙하여 남자와의 동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홍씨는 성정이 ‘어위하여’ 즉 너무 드세고 거칠어 남자로 하여금 사랑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sup>23)</sup> 문씨는 부끄러워하여 몸을 추스르는 것이 과도하고 너무 말이 없어 답답하다. 그러나 교씨만은 정숙한 숙녀가 아니라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기에 자신과 더불어 즐기기엔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대 이데올로기적인 질서 속에서 산출되기 쉬운, 너무나 정대하여 남성과의 잠자리를 즐겨하지 않는 숙녀형 인물 혹은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 남성과의 잠자리에서 수동적인 숙녀형 인물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다정한 교씨와 같은 인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을 임계영은 토로하고 있다.

이는 교씨가 두 번째로 혼인한 임주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주영은 교씨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탕소저와 혼인하였으나, 탕소저가 너무나 탈속적이기에 부부 간 마찰이 잦게 된다. 탈속적이라 함은 신선과 같은 고고한 삶을 꿈꾸며 속세를 벗어나기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이는 잠자리에서는 결국 남편과의 동침 자체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교씨가 가짜 부소저로 성명을 바꾸고 요약을 통해 절세미인으로 변모하여 임씨 가문에 다시 시집오자, 임주영은 교씨에게 침혹된다. 그런데 『쌍성봉효록』에서는 이런 원인을 이미 제시해 놓고도 임주영이 탕소저를 냉대하고 교씨만을 총애하는 이유를 미혼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미혼단을 먹고 나서 광증을 보이며 이후 미혼단을 해독시키는 약을 먹은 뒤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단의 장치는 남편의 미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여

23) 참고로 홍씨는 매우 박색이어서 임계영이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남편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는 선행 논의대로,<sup>24)</sup> 남성들이 탕녀형 인물들에게 현혹되어 숙녀형 인물들을 박대하는 문제적 사건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행간을 통해 분명히 읽을 수 있기에 이를 요약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쉽다.

이처럼 당대의 남성들은 탕녀형 인물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탕녀에 대한 ‘배제의 서사’라는 거시적 서사구조의 이면에 탕녀에 대한 ‘갈망의 서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질서체제의 위협적인 인물로서의 타자에 위치하는 탕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포리아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너무나 열망하는 존재일 때 느끼는 갈등의 아포리아 속에서 탕녀형 인물에 대한 기괴할 정도도의 심각한 변형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특히 탕녀형 인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은 그들이 지닌 성적 에너지가 분출될 수가 없었던 당대 사회체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인 동양사회에서 색(色)이 여색(女色)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여성은 성적 주체에서 제외되었고 남성만이 성적 쾌락의 주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성의 경우 성적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남성의 성적 쾌락은 절도를 지킨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것은 남성들에게는 성적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5)</sup> 이는 고전소설 속 남성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

24)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20쪽.

25) 이숙인, 『‘貞淫’과 ‘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찬가지로 적용된다. 탕녀형 인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을 선택하고 그 이성과 혼인하기를 도모하는 남성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동일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는 탕녀형 인물과는 꽤 다르다. 오히려 이들은 잘만 다듬어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할 재목으로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비도적인 에너지를 가진 이러한 탕녀형 인물은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앞서 탕녀형 인물들이 결국 모든 타자들을 규합하여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대목에서도 볼 수 있듯, 이들의 성적 에너지가 공적 영역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기존사회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체제 순응적인 유순함에 가깝다가도 어느 순간 체제 전복적인 과격함을 드러내기도 한다.”<sup>26)</sup>는 지적대로, 성적 욕망이 강한 탕녀형 인물들은 일견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가진 성적 충동은 남성중심적인 체제 안에서 만족될 수 없는, 체제전복적인 것이다. 그녀들이 가진 성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억압되다가 어느 순간 체제전복적인 것으로 변화할지 모른다. 더욱이 철저하게 가둬두기만 한 조선후기 당대에 탕녀들의 성적 에너지는 얼마만한 위력으로 분출될지 모르기에 남성들에게는 더욱 더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탕녀가 될지 모르는 조그마한 가능성만 내비쳐도 그들은 일단 이들 여성들을 탕녀로 매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포스러운 탕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미묘한 심리는 그들 스스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탕녀형 인물

---

2001, 120쪽.

26) 심진경, 앞의 책, 4쪽.

에 대한 극도의 기괴스런 변형을 통한 배제의 논리 이면에서는 남성들의 탕녀에 대한 갈망과 공포의 아포리아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 5.2. 배제의 논리와 자체 균열

『쌍성봉효록』의 교씨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당대 사회의 탕녀에 대한 갈망과 공포의 아포리아를 읽어낼 수 있다면, 『임씨삼대록』의 옥선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도 탕녀에 대한 배제의 논리 안에 결국 당대 사회체제가 지닌 자체 균열적인 결함이 노정되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군주라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보고 반한 임창홍의 아내가 되기 위해 첩이라는 지위도 마다않고 임씨 가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임창홍은 옥선이 별다른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단지 그녀가 자신을 보고 반해서 시집온 인물이라는 점 하나만을 가지고 더럽다고 꺼려한다. 아직 별다른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신부를 냉대하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신방에 가서 신부 가슴에 붙은 불을 꺼주라는 시댁식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임창홍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다음과 같이 싸늘하기 그지없다.

“쇼손이 츠마 음녀를 꺾기 못 호오리다”<sup>27)</sup>

“당중 초불도 못 끄는 지도로 그런 더러운 불을 쓰리잇가”<sup>28)</sup>

신혼 첫날 그토록 사모하던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던 옥선은 임창홍의 그림자도 볼 수 없자 “간장의 불이 일어느 상의 구러”<sup>29)</sup>치고 만다.

27) 『임씨삼대록』 8권, 63쪽.

28) 『임씨삼대록』 8권, 66쪽.

29) 『임씨삼대록』 8권, 71쪽.

이후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임창홍은 옥선의 처소에는 발길조차 돌리지 않는 냉혹함을 보여준다. 이에 옥선은 점차 견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온갖 악행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옥선이 정실인 설월염을 제거하기 위해 요괴의 무리와 결탁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계락을 꾸미거나 오랑캐의 왕비가 되어 임씨 집안 전체를 뒤엎기 위해 반란을 꾀한 것에는 임창홍의 잔혹하리만치 냉정한 태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홍이 옥선을 너모 박대헛기로 일이 것츄러 슬인가지 난가 흐느이다”<sup>30)</sup>, “노애[임창홍] 덕이 금슬을 빌니실진디 군주[옥선]의 한이 츄경의 니르리잇가”<sup>31)</sup>라는 못사람들의 말대로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창홍의 경직된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옥선과 임창홍이 전장(戰場)에서 대면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옥선은 이를 갈도록 미워하던 임창홍이었지만 그의 옥골선풍을 다시 대면하자 넋이 나가 제대로 공격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창홍은 조금의 인정도 두지 않고 옥선을 한 칼에 사로잡아 처형대로 보내버린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질게만 느껴지는 임창홍이 『임씨삼대록』에서 전혀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임창홍은 임씨 가문의 종손으로서 여러 손자들 가운데 가장 전범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군자 중의 군자이다. 그런 그가 지닌 폭력성이 서사의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옥선은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다. 양왕 등이 목숨을 내놓고 하룻밤 자기를 소원할 정도로, 못사내들이 끌려가는 옥선을 보고 모두들 달

30) 『임씨삼대록』 12권, 68쪽.

31) 『임씨삼대록』 14권, 75쪽.

려들어 한 번 만져보고자 난리를 칠 정도로 성적 매력에 강한 여성이다. 그럼에도 임창홍은 이성적인 규범의 잣대로서 옥선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잣대가 너무나 일방적이고 경직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강박증인 임창홍 스스로를 옹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옥선에게 일말의 운신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결국 옥선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도덕군자가 사실은 폭군이지만 그를 계속 군자로 남겨 두고자 했던 역사적 메카니즘은 바로 군자가 남성의 권력을 합법화하는 유교적 기제이기 때문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논한 바 있듯,<sup>32)</sup> 임창홍은 당대의 가장 이상적인 군자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군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자화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임창홍과 옥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즉 탕녀형 인물에 대한 강박적인 배제의 논리 속에는 결국 당대의 이데올로기의 협소성, 즉 포용의 한계를 역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당대 남성 중심의 체제가 지닌 자체 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작가가 이러한 균열적 징후들을 의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현실을 어느 정도 꿰뚫히게 재현하다 보니 이러한 징후들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되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점은 선악구조의 가장 정형화된 논리에 충실한 고전소설 속에도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당대 체제에서 가장 터부시되던 탕녀에 관한 서사에서 오히려 기존질서체제의 결함들을 읽어낼 수 있다

32) 이숙인, 『군자와 폭력』, 『전통과 현대』 2002 가을호, 전통과 현대사, 2002, 8~23쪽.

는 점에서 탕녀형 인물에 관한 새로운 글읽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다.

## 6. 결론

본고에서는 『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형 인물의 몸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 탕녀형 인물이 극단적으로 타자화되는 구체적인 양상과 더불어 이러한 강박적인 타자화의 양상 이면에 존재하는 당대 사회의 균열적인 징후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탕녀형 인물은 크게 호걸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와 군자형 남성과 혼인하는 탕녀로 나뉜다. 호걸형 인물과 혼인하는 탕녀인 『쌍성봉효록』의 교씨는 남편의 총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총애를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민 사실이 발각되는 과정에서 그간 속여 왔던 거짓 신분이 들 통남으로써 시댁에서 쫓겨나며, 군자형 인물과 혼인하는 탕녀인 『임씨삼대록』의 옥선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의 극심한 냉대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미는 한편 성적 갈등을 풀기 위해 다른 남자와 사통하다가 종국에는 이런 사실들이 모두 발각됨으로써 시댁에서 쫓겨난다.

그럼에도 이들의 몸이 형상화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서사가 시작되는 국면부터 선형적으로 요부·악녀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요괴와의 연대 혹은 천형의 낙인에 의해 요물로 변형되다가, 종국에는 오랑캐 땅으로 추방당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의 몸은 매우 우연적인 설정에 의해 당대의 남성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형되거나 훼손되고 있었다. 이들의 몸은 갑작스런 천형(天刑)에 의해 온 몸에 농즙이 가득한 괴물로



변형되거나 무수한 오랑캐들에 의해 처참히 짓밟힘으로써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추락하고 있었다.

탕녀형 인물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차별과 배제는 결국 당대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를 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었다. 탕녀형 인물이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에 근거한 기존체제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타자로 배제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불안감은 이들 탕녀형 인물이 요괴, 오랑캐 등 당대의 타자들을 모두 규합하여 중원을 전복하려는 양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규합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탕녀에 관한 서사는 다시금 남성 중심의, 중원 중심의 기존질서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제순응적인 이러한 안정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봉합되지 않은 균열이 자리함으로써 이들 작품은 새로운 긴장감을 창출하고 있었다. 우선 호걸형 남성인물을 비롯한 많은 남성형 인물들이 당대의 규범 아래에서 산출되기 쉬운 전범적인 숙녀형 인물과의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탕녀형 여성들을 갈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탕녀형 인물이 지닌 성적 에너지가 승화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모두 차단되었던 당대에, 그녀들은 지극히 터부시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탕녀형 인물에 대한 공포와 갈망의 아포리아가 재현되고 있었다. 한편, 탕녀형 인물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냉혹한 군자형 인물을 통해서도 당대의 군자가 지닌 폭력성이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군자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가장 전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결국 이는 당대 사회체제가 지닌 포용의 한계 즉 협소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가장 전형적인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보이는, 고전소설 속 탕녀에 관한 서사 안에 당대의 남성 중심적 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담

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관한 서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고전소설 중에서도 대하소설에서 탕녀형 인물이 극단적으로 괴물화되고 또 체제전복적으로 형상화된 것은 여러 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가정소설 등에서도 탕녀형 인물이 범상치 않은 인물로 형상화되면서 괴물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대하소설에서처럼 그녀들이 기괴적으로 변형되거나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한 집안을 위기에 처하게 할 정도의 역할에서 그친다. 그런데 대하소설에서는 요괴, 오랑캐들과의 결합을 통해 이들 탕녀형 인물이 지니는 기괴스러움이 한층 더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에는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체제전복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대하소설이 주로 상층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고, 상층의 전범적인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으리라 생각한다. 당대 체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고 그 규범의 실천에 충실한 상층, 특히 상층남성에게는 탕녀형 인물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비록 이념적으로는 당대의 남성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가문의식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점차 세속적인 욕망이 대두되어가는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이들 탕녀형 여성들에게 ‘접근 금지’ 혹은 ‘이상 인물’이라는 마녀사냥식 표지를 붙이는 극단적인 방식이 선택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형상화 속에는 역설적으로 당대 체제의 결합이 더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쌍성봉효록』 16권 16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임씨삼대록』 39권 39책.

### 2. 단행본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1.  
심진경,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이명옥, 『팝프과탈-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 다빈치, 2003.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강의』, 동녘, 199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시각·쟁점·역사』, 창비, 2005.  
류사오평, 『역사에서 허구로』(조미원 외 역), 길, 2001.  
리타 웰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김영찬·심진경 역), 거름, 199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삶의 의지』(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문경자·신은영 역), 나남출판, 1990.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황정미 편역), 새물결, 1995.  
케티 콘보이 외,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고경하 외 역), 한울, 2003.  
토리 모이,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임옥희 외 역), 한신문화사, 1994.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이봉지·한애경 역), 문학과지성사, 2000.

### 3. 논문

김미현, 「이브의 몸, 부재의 변증법-한국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몸」, 『기호학연구』 12, 한국기호학회, 2002, 24~36쪽.  
김세서리아, 「차이의 철학으로서의 음양론과 ‘차이-사이(관계짓기)’의 변증법」, 『시대와 철학』 17,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7~37쪽.  
김용태, 「여성의 몸에 찍힌 반역의 낙인 : 엘리노어와 메베스 부인의 마녀와의 연대」, 『세익스피어 비평』 41, 한국세익스피어학회 2005, 653~678쪽.  
김주리,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신체 담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안미영, 「근대소설연구에서 몸 담론의 전개과정과 쟁점」,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27~163쪽.
-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 이숙인,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 : 몸의 주체화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전통과 현대사, 52~69쪽.
- 이숙인, 「'貞淫'과 '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2001, 5~32쪽.
- 이숙인, 「군자와 폭군」, 『전통과 현대』 2002 가을호, 전통과 현대사, 2002, 8~32쪽.
- 이숙인, 「중국고대의 질서담론-혈통과 젠더의 서사」, 『철학연구』 63, 철학연구회, 2003, 25~46쪽.
- 이승복, 「처침갈등을 통해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정연희의 장편소설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5, 한국문학회, 77~96쪽.
-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Abstract

The thesis of lewd woman in the classic river-novels  
 through the mode of drawing bodies  
 - centering around Gyossi in *Ssangseongbonghyorok* and Okson in *Imssisamdaerok*

Han, Gil-yeon

This thesis discussed the mode of drawing lewd women's bodies in the river novels as Gyossi in *Ssangseongbonghyorok* and Okson in *Imssisamdaerok*. These two characters are similar to the other lewd women characters, but in the mode of drawing bodies they are excluded through extreme and bizarre transforms.

Their bodies are defined as jilts or wicked women and what is more transform to bizarre goblin, and in the end exiled to wild barbarian territory. These extreme discriminative treatments and exclusions to lewd women characters are the method of reappearance man-oriented power system. The cause of these exclusions is apprehension for these lewd women characters may disturb and overthrow the patriarchy system.

But in spite of these establishment and stable conclusion, ruptures not seamed of the other side create new tension in these classic novels. These narratives of lewd women characters have meanings in the point that these novels incorporate the basic question to the issues of contemporary system in the typical dichotomy between good and evil of classic novels, especially in the rigid taboo of the lewd women.

**Key words** : lewd woman, sexual desire, body, exclusion, self rupture, classic river-novel

- 본 논문은 10월 15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